

『호랑이 같이 박력있는 한해가 됩시다』

씨애틀 한인회장 박태호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올해는 교민가정마다 건강 다복하시고 호랑이 같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으뜸가는 일꾼이 되시어 뜻하신것 모두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1986년도 저의 한인회에 봉사하실 임원 여러분들을 지난 1985년 12월28일 아리랑의 밤과 1986년 1월1일 신년하례식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같이 과거 한인회에 봉사하셨던 분, 새로 봉사하실 여러분 모두가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교민들로 구성되어 실로 호랑이 같이 박력과 열의가 있는 임원임을 감히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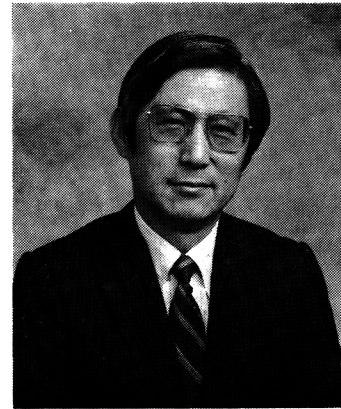
제가 이곳으로 이민은 1978년 12월20일 그 당시는 저와 아는 교포는 한분도 없었으며 단 한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미8군 소령 한가족의 소개로 이곳에 왔읍니다. 그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1983년 한인회에 봉사하면서 많은 교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나와 같이 가족이 건강히 정착하게 된것에 감사함을 교민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의 한인회는 과거 선배님들이 쌓아온 수고와 뒤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 교민여러분의 공이 쌓여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저의 한인회가 할 행사중 가장 큰 사업은

1. 주소록 발간
2. 매월 한인회 활동보고
3. 역대 한인회 이사임원 초청 과거 경험과 앞으로의 의견교환
4. 윗어른에게 존경심을 고취하는 경로잔치
5.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야외 Camp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한 SAT 여름학교 실시
6. 각종 운동경기, 계절에 맞게 실시
7. 1천 세대 한인회비 납부 Campain 등입니다.

최경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사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금년은 저와 여러분의 한인회가 아니라 우리 범교포가 필요로 하고 협조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교포가정마다 더욱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며 1986년 첫 한인회보를 발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한인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임 원

회 장 - 박태호

부 회 장 - 윤광남, 최주찬

총무부장 - 김영남

총무차장 - 유창명

재 무 - 케이 멀린스

섭 외 - 신호범

편 집 - 유준식

청 년 - 이성춘

법 률 - 이동훈

교 육 - 오계희

부 녀 - 임경빈

홍 보 - 김영진

기 획 - 백인홍

체 육 - 이승우

경 로 - 안정호

문 예 - 박창모

회장보좌 - 에릭 탐슨

아리랑의 밤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온 교민들의 각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된 행복이 우리 교민사회에 넘쳐퍼지게 되고 그 넘쳐버린 행복과 평화에 의해 이 지역사회에 안정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을 건너 조국강산에까지 멀리멀리 퍼져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의 영원인 조국통일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인회가 좀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하려면 몇가지 절대로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첫째로는 교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의식입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참여의식과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자립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교민들이 오랫동안 원하고 있는 회관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민들과 교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건물을 가질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금년에는 상세하고도 정확한 한인회 주소록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986년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미숙한 본인이 이번에 한인회 중책을 맡게되어 교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매일 사업에 바쁘신 교민 여러분들께 건강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순서없는 저의 인사를 맺습니다.

매년말 교민들간의 친목과 위안을 목적으로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주최로 열리는 1985년도 아리랑의 밤은 12월28일에 350여명의 교포가 참가한 가운데 명랑하면서도 질서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제1부 순서에는 구임원소개와 신입원과 신이사진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곧이어 김간난 여사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제2부 순서는 UW 한인 학생회에서 준비한 합창이 박창훈씨의 지휘로 교포들에게 선사되었으며 독창순서도 있었다. 제3부 순서는 만담과 3인조 밴드의 음악이 있었는데 수줍은 교포가 많았던 탓인지 댄스 스테이지가 꽉차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에 익숙한 교포들은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면서 피곤한 이민생활을 잠깐이라도 잊으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과 친구를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정겹게 보였다. 앞으로는 아리랑의 밤의 내용이 더욱더 좋아지길 바라며 더 많은 교포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

- 이 사 장 최경수
- 부이사장 임광희
- 총무이사 민학수
- 이 사 김홍식
- 한만섭
- 이순모
- 오준걸
- 신응호
- 권태원
- 최주찬
- 윤광남
- 박태호

권 두 언

주 씨애틀 총영사 안세훈

희망의 새해 1986년을 맞아 서북미 지역의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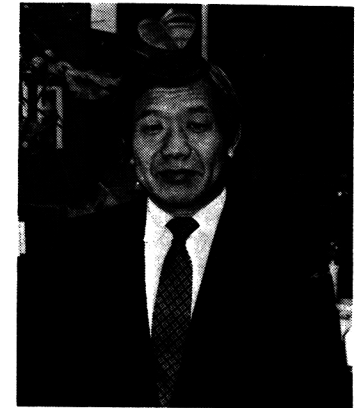
이지역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작년 말 선임된 박태호 회장을 필두로한 임원이 올 1년을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인회에서는 종래와 달리 교민과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취지에서 회보를 매월 1회 이상 발행하여 한인회의 움직임과 교민 여러분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자주 알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의 첫 시도인 금년의 첫회보를 통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천이 다르고 언어, 관습이 다른 이역, 미국땅에 와서 사는 우리교민은 때로는 외롭고, 또 스트레스나 각종 갈등을 느낄때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때일수록 동족인 우리가서로 흥금을 터놓고 대화해 나갈 때 안으로는 위로가 될것이며 밖으로는 교민 상호간의 친목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이회보는 한인회 임원 몇분만의 것이 아니요, 여러교포를 위한것임을 자각하고, 모두의 「사발통문」과 같이 애용되고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디 모처럼 새 한인회가 의도한바 목적대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교포 여러분 가정의 행복하심과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 총영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립니다.

- 2월1일-상공인(전미) 모임준비
- 6월 -섬머스쿨(Summer School) 참여
- 5월~9월-뱅크버 박람회 Pre-Exhibition 준비, 4월중 예상
- 7월~8월(미정)-한바다호 그리고 해사생도 입학

씨애틀 총영사관에서는 각지역 한인회장단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지역별로는 씨애틀, 타코마, 포트랜드, 유진, 스포켄, 트라이시티, 그리고 뱅쿠버 등입니다.

● 씨애틀 한인회에서는 많은 교포들의 참여와 협조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없이는 저희가 성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셔서 저희가 발전하여 이 교포사회에 더욱더 많은 봉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비는 일년에 1인당 10불이며 1가구당 20불입니다.

한일각

Hanil Korean Restaurant

KOREAN ROYAL CUISINE • COCKTAIL LOUNGE
LIVE ENTERTAINMENT

식당 영업중

바 - 내부수리중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587-0464

EUNG H. SHIN
OWNER



CLARA PAK

Clara's Dress Salon
DRESS MAKING & ALTERATIONS
FOR WOMEN & MEN

NEXT TO FRED MEYER
939 N. 182 ST.
SEATTLE, WA 98133

BUS 542-7855
RES 775-8923

공지사항

● 1986년도 3.1절 행사는 한인회관에서 오후 6시에 거행된다. 이 뜻깊은 날에 많은 교포들이 참석하여 그날을 상기하면서 자리를 빛내주기를 바란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 세금보고의 계절을 맞아 씨애틀 한인회와 UW 학생회에서는 무료로 교포들에게 세금보고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범위는 1040 EZ와 1040 A 로 한정하였다. 복잡한 세무보고는 전문인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서비스 드리는 날짜는 2월22일과 3월8일이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한인회관이고 주소는 위와 동일하다.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미리 시간과 날짜를 정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며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준식(946-1156), 이동훈(526-0486), 김영진(542-1285)

● 씨애틀 한인회에서 한인회관에 part time 으로 근무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찾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후2시부터 6시까지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한글 타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을 환영하며 간단한 전화통화를 친절하게 할수 있으면 됩니다. 보수관계는 전화로 상의하십시오.

● 한인회에서 법률고문으로 봉사하는 이동훈 변호사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무료 상담을 한다. 상담내용은 사업계약 관계, 세금문제, 가정법, 이민관계, 상해보험문제 등등이다. 상담날짜는 아래와 같다. 2월1일, 2월15일, 3월15일, 3월29일.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로 정하였다. 장소는 한인회관이며(위 참조) 전화번호는 362-4500이다. 많은 분들의 사용을 바란다.

한인회 동정

● 지난 12월28일에 있었던 아리랑의 밤은 1985년도 임원들의 계획적인 설계와 준비에 의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신 그분들의 가족에게 또한번 감사를 드린다.

● 1월1일 있었던 조찬기도회는 각계각층의 많은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우리 교민사회를 위하여 축복과 기도를 하여 주셨다. 이 조찬회를 위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수가 없다. 후원을 하여주신 분들과 그 가정에 만복이 깃들리라 믿는다. 교민사회를 위하여 축복을 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때 우리 한인사회가 서로 상부상조하여 미국에서 각광을 받는 소수민족이 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 1986년도 한인회 임원들은 지난 1월3일 씨애틀 총영사관을 방문하였다.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서로의 계획과 목표를 토론후 서로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업무인수인계는 지난 1월15일 전회장단과 새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전회장단의 철두철미한 자료로 인하여 정확히 인계가 되었다. 조그만 결손이나 부채가 없이 넘겨준 전회장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지난 1월12일에는 새임원과 이사진들이 모여 일년 행사와 예산을 검토하였다. 금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병규 치과

시 애틀 : 367-5570
월드럴웨이 : 838-3180

한인회비 납부자

1985년도 아리랑의 밤 찬조자 명단

총영사관	500불	곽상영	100불
Plaza Select Food	15불	Ron Brown	100불
이종운(Overlake Cleaner)	100불	이종덕	100불
고봉식(K. Beverage)	150불	조성옥	50불
이정섭(세탁협회)	100불	북부 씨애틀	50불
조영(영미정)	100불	Hawaiiai B,B,Q	50불
문희동(Capital Grocery)	50불	제일 Auto Service	100불
강석동(Benson Grocery)	80불	Pall Shin	100불
혜식 스미스	100불	고종욱	20불
노병일	100불	빌립보 장로교회	200불
김재희(Plaza 1 Hour)	50불	홍인표	100불
성동민(Grocery 협회)	100불	고종욱	20불
김훈	30불	제일식품	35.53불
Myrha K Lee	200불	김홍식	300불
손기남(Kelly, CPA)	50불	Actual Contribution	600불
박춘석	100불		
이종규	100불		
Aurora 식품	70불		
김간난	100불		
한만섭	100불		
Lee's Produce	100불		
구범희	100불		
최경수	300불		

1985년도 아리랑의 밤을 위하여 찬조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리랑의 밤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으리라 믿으며 198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아리랑의 밤을 위하여 찬조금을 내신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Ko's 사진관 & Video

- 결혼,백일,회갑 및 가족사진 촬영
- 비데오 출장촬영
- 비데오 편집
- 각장 비데오 관계 취급

전화 : (206)775-0896

대표 고광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나사렛 교회

- * 대 예 배 : 주일 낮 아침 11시
- * 한글학교 :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장선희, 김영래 지도)
- * 장 소 : 본 교회 (8600 9th Ave Seattle, WA 98106)
- * 전 화 : 546-3594

담임목사 백세현

BELLEVUE 남대문 식품

- ★ 각종 한국,일본,중국식품
 - ★ 아침 9시~오후8시(연중무휴)
- 3900 128th Ave SE #D Bellevue, WA 98006
(Factoria Mall)
(206)643-4244

영미정



榮味亭

YOUNG ME RESTAURANT

KOREAN & CHINESE CUISINE
COCKTAIL LOUNGE (LIVE MUSIC)
7 DAYS A WEEK 11:00 AM - 2:00 AM
220 - 4TH AVE. S. SEATTLE, WA 98104 (206) 623-3112

1985년도 한인회비 납부자

최주찬	60불
안승적	20불
조응덕	50불
김영일	20불

1986년도 한인회비 납부자

임경빈	20불
김영진	20불
백인홍	20불
안정호	20불
박창모	20불
이성춘	20불
Eric Tompson	20불
이동훈	20불
오계희	20불
최경수	100불
임광희	50불
민학수	50불
김홍식	20불
한만섭	20불
이순모	20불
오준걸	20불
신응호	20불
박영희목사	50불
신호범	200불
이승우	20불
장태근	20불
John L Perreaultz	20불
Hwan Ja	
Dan K Lee M.D.	100불
이종득	20불
박태호	100불
윤광남	100불
최주찬	100불
김영남	20불
유준식	20불
Kae Mullins	20불
권태원	20불
허 권	20불

* 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일 식 품
The First Oriental Grocery Store
[Oriental Foods & Gifts]
Seattle Heights Center

Joo Chan, Chai
대표 최주찬

21405 HWY 99 (Suite A)
LYNNWOOD, WA 98036
PHONE: (206) 774-4103



코스모스 미용실

남녀 헤어컷 퍼머넌트
*매니큐어 *신부화장
*염 색

월~토 오전 8:30~오후 7시

Next to FRED MEYER
933 North 182nd St.
Seattle, WA 98133

Mrs. 리
(206) 546-4276
For Appointment
집 (206) 743-3587

味樂 Mi Rak
ORIENTAL FOOD
Korean - Japanese Style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Phone: 839-6522



윤 종합보험
윤 해 근

생명·자동차·주택·사업

한국어 [206] 347-3837
영어 [206] 745-3552

10929 Hwy 99 S. Suite A Everett, Washington 98204



편집 후기

- 1) 한인회보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발송이 된다. 물론 전번 한인회보하고 내용과 부피가 달라졌음을 교민여러분께서 알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한인회보는 기관지 성격을 띠게 되며 격월로 나오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 2) 첫번 편집하는 회보라 미흡한점이 많으리라 믿는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다음호는 좀더 알찬 내용을 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처음 말아보는 한인회보 편집이라 경험이나 실력면에서 초보자라는 사실을 부인할수가 없다. 하지만 이 회보가 교민여러분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는 회보로 만들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3) 한인회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즉시 연락하기 바란다.
연락처 : 유준식(946-1156)
- 4)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편집인에게 연락을 바란다. 광고비는 한달에 30불. 사이즈는 동일하다.
전화 946-1156
- 5) 저희 씨애틀 한인회에 어떠한 문의나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전화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연락이 될것입니다.
타코마, 웨드렐웨이-유준식(946-1156)
시애틀-박태호(775-8923)
벨뷰-김영남(643-9433)
시애틀 유창명(362-2510)

한인회보 1986년 제1호
발행인 : 박태호
편집인 : 유준식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33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전화 (206)362-4500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HAN KOOK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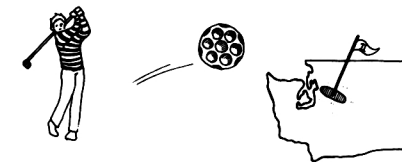
FREE ESTIMATES
QUALITY WORK, LOW PRICE



JASON M. YON
연 명 모

17258 139th PL. S.E.
RENTON, WA 98058

(206) 241-1828
(206) 246-1252



02940

TO: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보 회 인 항

JANUARY 1986